

• 편집인/유병철 • 편집인/홍희숙
• 발행인/사외이사장/박인환 한국혈우재단



코헴

KOREA HEMOPHILIA FOUNDATION

2002. 10



코헴

KOREA HEMOPHILIA FOUNDATION

2002년 10월호(동권 제44호)

· 발행일 / 2002. 10. 31.

· 발행인 / 유 명 천

· 편집인 / 윤 기 중

· 발행처 / 사회복지 한국혈우재단

· 인쇄인 / 예드래위 정태인

☎ 1377-0172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6-26번지

전화: 3473-6100 FAX: 3473-6644

e-mail: kohem@kohem.org

Home Page: http://www.kohem.org

2002 10 월호

C O N T E N T S

특집/

AIDS감염 보도 관련 한국혈우재단의 입장 - 3

지상중계 - 국회 증언청취 - 6

상황일지 - 12

재단활동/

재단 2층 휴게실 마련 - 15

재단 이전 후 첫 한자 맞아 - 16

관심운동법/

혈우병 한지를 위한 관심운동법(2) - 17

세계혈우연맹/

'안전과 공급 소식' 제 1호 - 20

참견기/

인터넷 활성화로 상호교류 증진해야 - 23

김연수(아주대 수석재 박사과정)

수필/

지금 여기에 - 25

한용익(이성명 어머니)

전주 조개의 고통으로 영그는 '나의 꿈' - 27

우유향

코헴회 소식/ 30

어느 덧 옷깃을 여미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혈우가족들은 큰 걱정과 불안을 겪어야 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혈우재단의 모든 종사자는 이번 일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파하며 하루 빨리 혈우가족이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기원하고 또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호에는 동아일보의 보도와 그간의 일들에 대한 재단의 입장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또 그간의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일지 형식으로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립보건원 국정감사 때 있었던 증언청취의 내용을 원문 그대로 게재하였습니다. 이는 한 상황에 대하여 가공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여 혈우가족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도록 한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두번 의곡이 됩니다.

한번은 말하는 사람의 입 밖으로 나올 때 말하는 사람의 입장이 섞여서 나오게 되고, 또 한번은 듣는 사람의 귀속으로 들어갈 때 듣는 사람의 입장이 또 섞이기 되는 것입니다.

들여다 보면 언론의 보도, 인구에 회자되는 이야기 등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렇게 몇번씩 왜곡되면서 소문이라는 것이 되나 싶기도 합니다.

코헴지에도 물론 편집자의 주관의 섞이기도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백마디 말을 했는데 그 중 자신의 구미에 맞는 10마디 만을 골라낸다면 전혀 엉뚱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봄, 성유의 한 혈우병 어린이를 TV에서 방영하였을 때 정직 재단이나 환자가족이 원하는 말은 나오지 않고 엉뚱한 말만 나온 것이 바로 좋은 예일 것입니다. 딱딱한 편집과 많은 내용으로 무리가 있다 싶었지만 증언청취 중 김홍신 의원의 질문부분을 전문 게재한 이유가 바로 가공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판단하였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혈우환자와 어머니의 글이 각각 1편씩 실립니다.

식 잘 쓴 글은 아닐지라도 진솔할 마음이 담겨있는 좋은 글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코헴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을이 되시길 바랍니다.

AIDS감염 보도 관련 한국혈우재단의 입장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한국혈우재단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진료를 비롯한 재단의 활동이 정상화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혈우재단은 앞으로 더욱 건실하고 튼튼한, 혈우가족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재단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1. 현재 진행상황

이미 재단의 입장을 지난 9월 28일 혈우가족 여러분께 서면을 통하여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 후 10월 1일 코헨회의 항의집회와 재단 방문, 국회 앞 시위가 있었으며,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립보건원 국정감사 중 ‘혈액제제의 AIDS 감염 보도’와 관련한 증언 청취가 있었습니다.

이날 증언청취 후 10월 2일자 동아일보 29면에 “에이즈 감염자 3명 혈액 혈우병 치료제 원료에 섞여”, “제약사 관계자 국감 증언, ‘당초 지목된 오모씨 혈액 치료제 원료로 사용안돼’”라는 제하의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10월 19일자 같은 신문 7면에 ‘반론보도문’을 통하여 ‘문제의 오씨 혈장은 국산 B형 혈우병 치료제의 원료로 사용된 적이 없으며, 따라서 오씨와 혈우병 환자들의 에이즈 바이

러스 염기서열이 유사하다는 점은 국산 B형 혈우병 치료제와 상관없는 문제’라는 제약회사의 반론이 보도되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9월 15일과 29일에 두 차례 회의를 가졌습니다. 특히 29일 회의에서는 조영걸 교수와 김선영 교수가 출석한 가운데 두 연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진상조사위원회는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급 받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는 애초에 김은주 재단의원이 조사위원으로 참여하여 15일 회의에 참석하였으나, 코헨회의 요구에 따라 조사위원을 사퇴하였습니다.

재단은 10월 16일 재단을 방문한 국립보건원 관계자를 통하여 엄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당부하였습니다. 국립보건원 방역과는 재단에 조사위원 재선임을 위촉한 상태이며 재단은 곧 선임을 할 예정입니다.

2. 진료 정상화에 대하여

김은주 재단의원장이 출근 준비 중 쓰러져 입원한 9월 18일 이후 현재까지 재단의원은 대진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은주 원장은 원자력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9월 26일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10월 4일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었습니다.

김은주 원장의 사임은 재단과 혈우가족에게는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으며, 재단으로서도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지난 94년 2월 취임한 이래 김은주 원장이 보여준 열정과 혈우가족에 대한 애정과 능력, 그리고 혈우병 치료의 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쌓아온 업적을 잃는다는 것은 큰 슬픔이며 아픔입니다.

그러나 환자단체의 대표인 이명동 코헬회장으로부터 '자격이 없다', '환자를 위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민경희 서울·경기지회 고문으로부터 환자 치료를 위하여 9인자 투여량을 수정하도록 노력한 것을 '약을 많이 팔려는 속셈'으로 오도 당하는 등 그간 겪은 고초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와 의사와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더 이상 진료를 지속할 수 없다'는 김은주 원장의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불어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한 사람은 응당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한국혈우재단은 사태가 이와 같은 상황까지 번진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더불어 김은주 원장의 퇴임을 직접적으로 유발한 이후에 '모든 감성적인 말은 약하고, 우리 코헬회는 김은주 원장님께서 혈우환자를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며 재단에 사직서 반력을 요구한 코헬회에 이중적인 행동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조속히 후임 원장을 선임하여 진료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3. 약품 수급 문제

유전자 재조합 9인자 제제인 '베네픽스(BeneFix)'와 관련하여 10월 23일에 약가 결정을 위한 회의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

단은 관계 부처와 제약회사(와이어스사)를 통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로부터는 '애초에 2003년 1월 출시 예정이었으나 10월 초에 출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약가와 급여기준 결정 등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더불어 재단은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취득하고 보험약가와 급여기준 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스터 사의 혈우병 제8인자 유전자 재조합 제제인 '리콤비네이트(Recombinate)'의 조속한 처리를 지난 10월 4일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였습니다.

4. 코헬회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지난 8월 코헬회에서 요구한 내용은 ①코헬회에서 추천한 환자, 가족, 인사의 재단 이사회 과반수 참석 ②상임이사 인준권 부여 ③재단 사무국에 혈우환자 취업 등 3가지입니다.

이중 첫 번째 요구안은 실질적으로 재단을 코헬회에서 좌지우지하겠다는 내용이며, 상임이사의 인준권도 재단 위에 코헬회가 존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요구안을 부결한 재단이사회의 서면이사회 결과가 이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재단과 재단 이사회가 떳떳하지 못하다면 코헬회가 '재단의 감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 '재단 사무국에 혈우환자 취업'을 이사회에서 부결되었음에도 '적극 검토'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코헬회는 지난 10월 1일 재단과 국회가 있는 여의도에서 'AIDS 감염자 혈액이 원료로 사용'된 것에 대하여 항의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재단 앞 집회에서 이명동 코헬회장이 말한

내용은 “재단 이사회에 환자와 가족이 참여하고 재단 상임이사의 취임시 인준권을 달라는 요구를 재단 이사회는 외면했다”며 “재단은 각성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이사와 코헬회장단의 면담에서도 요구사항으로 제시한 것은 이사회 참여 문제였습니다.

이는 곧 많은 혈우가족은 언론보도로 인하여 불안함에 떨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안과 해결방안, 혈액제제의 안전성과 공급의 지속성 등 혈우가족에게 꼭 필요한 내용은 뒤로한 채 재단의 운영권을 틀어쥐겠다는 의지만을 밝힌 것이라 생각합니다.

코헬회는 재단 이사회 참여와 관련하여 재단의 사업과 활동에 혈우가족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앞으로 기존의 재단 사무국과 코헬회 사무국 간의 연석회의를 월 2회로 정례화하여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또한 재단 홈페이지와 코헬지를 통한 의견 제시의 길도 항상 열어둘 것입니다.

아직도 ‘코헬의 집’을 이용하는 지방의 혈우가족은 아침저녁으로 두시간 이상을 허비해야 합니다. 재단은 수술 환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여러 차례 ‘코헬의 집’ 이전 문제를 거론하였고, 공문까지 보냈으나 이명동 코헬회장은 ‘더 큰 일이 있다’며 논의를 거부하였습니다. 만일 코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 거부한다면 재단은 독자적으로 ‘코헬의 집’을 마련·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헬회가 요청한 환자 이동용 특수차량이나 지방 혈우가족이 원하는 지역별 사무실 개설 또한 재단에서 추진하려 하였으나 코헬회의 무성의와 반대로 늦어지거나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헬회가 진정 혈우가족을 위한다면 많은 혈우가족을 불안에 떨게 한 채 재단 운영의 주도권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재단과 함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5. 향후 재단활동에 대하여

한국혈우재단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혈우병 환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재단의 뜻이 오해될 수도 있고, 일순 섭섭한 감정을 느끼거나 재단의 활동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느낄 수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시에는 군대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으며, 두꺼운 얼음 밑에서도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는 법입니다.

더불어 재단은 수 차례 밝혔듯이 혈우가족 여러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누구라도 재단을 방문하여 건의를 할 수 있으며, 담당자와 면담을 할 수 있습니다. 재단은 여러분의 건전한 비판과 의견을 수렴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여러분의 비판과 의견은 재단이 활동하는데 훌륭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익명성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비난과 다른 의도가 있는 의견이라면 단호히 거절할 것입니다.

한국혈우재단의 모든 종사자들은 몇몇 환자나 가족, 제약회사의 이익이 아닌 전체 혈우환자를 위한다는 입장을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2002년 10월

한국혈우재단 임직원 일동

국회 보건복지위 증언청취 지상중계

지난 10월 1일, 국립보건원 국정감사

이 글은 지난 10월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립보건원 국정감사 중 혈액제제의 AIDS 감염과 관련한 증언 청취의 내용이다. 동아일보의 보도와 관련하여 많은 혈우가족이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게재한다. 증언청취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질의하였으나 증인 출석을 요구한 김홍신 의원의 질문내용을 중심으로 게재하며 그 외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별도로 게재한다. 내용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공받은 당시 녹화테이프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편집자註>

-출석 증인-

김선영(서울대 자연대 교수), 엄용태(고대 의대 교수), 이성민(녹십자(주) 전무), 이용홍(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 조남선(적십자 혈액관리본부 안전관리부장), 조영걸(울산대 의대 교수) - 이상 6명, 가나다 순

김홍신 의원 : 우리나라가 자칫 에이즈 위험국가로 전락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기에 그 진상을 국회에서 가려야 하기에 청했습니다. 이용홍 증인, 보건정책국장 이시죠?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이유는 직접적인 사실관계 보다는 복지부의 주무 국장으로써 이 사안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진상조사와 원인규명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돌아가셔서 장관께 책임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책무를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점을 명확하게 이해하셨죠?

이용홍 국장 : 예.

김홍신 의원 : 조남선 증인, 매혈이 금지된 것이 99년도 맞습니까?

조남선 부장 : 예. 맞습니다.

김홍신 의원 : 99년 혈액관리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법령상으로는 매혈이 허용됐었죠?

조남선 부장 : 예. 맞습니다.

김홍신 의원 : 이 때 매혈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을 알고 계시죠. 수혈용 혈액에 대한 매혈이 금지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조남선 부장 : 1981년입니다.

김홍신 의원 : 그렇다면 81년 이후에는 수혈용 혈액은 헌혈로 공급되었다고 봐도 됩니까?

조남선 부장 : 예. 맞습니까?

김홍신 의원 : 만일 수혈로 인하여 AIDS에 감염되었다면 추적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조남선 부장 : 예. 가능합니다.

김홍신 의원 : 90년대 초반에 B형 혈우병 환자의 집단 AIDS 발생이 수혈에 의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남선 부장 :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신 의원 : 조영걸 증인, 조남선 증인의 말씀을 인정합니까?

조영걸 교수 : 인정합니다.

김홍신 의원 : 그렇다면 김선영 증인께서도 인정합니까?

김선영 교수 : 저는 분자생물학을 하는 사람이기에 그런 일에 대한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말씀하시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 분야가 아닙니다.

김홍신 의원 : 염용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용태 교수 : 저는 혈액학 전문가가 아니고 역학 전문가이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했을 뿐이지만, 역학 조사를 하면서 주변 사항을 공부해 보니까 긍정적으로 들립니다.

김홍신 의원 : 이성민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민 전무 : 수혈로 인하여 감염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신 의원 : 김선영 증인, 97년도에 한국혈 에이즈 바이러스를 발견하여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김선영 교수 : 예.

김홍신 의원 : 당시 발표내용을 요약하여 간결하게 말씀해 주시죠.

김선영 교수 : 저희가 약 46명의 감염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특이하게도 그 사람들의 HIV 염기서열 70~80%가 저희 표현으로 한 클러스터링을 이루는 것을 발견해서, 분석해 보니까 한국에만 많이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을 98년도 1, 2월에 국제학술지를 통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김홍신 의원 : 축약하면 한국인의 AIDS 바이러스가 외국인 하고 다른 특별한 형태가 존재한다는 말입니까?

김선영 교수 : 예. 맞습니다. 다는 아니고 약 70~80%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김홍신 의원 : 조선일보에 '김선영·황우석 교수가 만드는 과학면'이라는 코너를 기고하고 계

시죠?

(이 부분에서 자료가 잠시 중단 되었음. 김홍신 의원이 김선영 교수의 조선일보 기고 내용 중 한국형 에이즈 바이러스에 대하여 '국내 에이즈 바이러스는 몇 명에 의해 유입돼 퍼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확인 질의함.)

김선영 교수 : 예를 들어서 혈액제제로 들어갈 수 있고 한 사람이 들어와서 성행위, 매혈을 통해서 퍼질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오픈되어 있습니다.

김홍신 의원 : 이 반대의 가능성에 대한 논리를 펴는 학자도 있죠?

김선영 교수 : 학자들은 당연히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고 그것이 결국 데이터,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아직 가설이기 때문에 부정될 수도 있고, 긍정될 수도 있습니다.

김홍신 의원 : 염용태 증인, 당시의 역학조사 보고서를 책임지고 쓰신 분이시죠? 이 보고서 내용이 94년 5월 4일 열린 진상조사위원회 회의의 결론으로 인용된 것도 알고 계시죠?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결론 중 하나가 '감염 경로는 수혈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며 혈액제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원인제품을 규명하기는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국내산인지 외국산인지 규명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되도 괜찮겠습니까?

염용태 교수 : 네, 그렇습니다.

김홍신 의원 : 그렇다면 증인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까지 종합적 조사와 데이터 분석, 그런 학자적 양심으로 하셨을 것 아닙니까?

염용태 교수 : 당연한 얘기죠.

김홍신 의원 :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에 대한 반

대 이론을 제시할 때는 명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죠?

염용태 교수 : 다른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을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김홍신 의원 : 이성민 증인, 언론에 보도가 나간 이후 녹십자 해명자료에 의하면 '혈우병 환자들에서 집단적으로 AIDS가 발생한 것으로 혈우병 환자들이 관리가 되지 않다가 혈우재단에 등록하면서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견된 것일 뿐이다' 라고 밝혔는데 맞습니까?

이성민 전무 : 네 맞습니다.

김홍신 의원 : 그렇다면 혈우병 환자들이 이전부터 AIDS 바이러스 보균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성민 전무 : 그렇습니다.

김홍신 의원 : 혈우병 환자들의 지금 주장은 '아니다. 이때부터 나는 에이즈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는데 반박이론은 무엇입니까?

이성민 전무 : 외제를 맞지 않았다는 일부 환자에게서 역학조사 결과 외제를 맞은 진료기록이 있고, 국내에 공식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제품은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김홍신 의원 : 김선영 증인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선영 교수 : 녹십자 혈액제제 이전에 혈우병 환자들이 AIDS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염용태 교수 : 혈우재단이 91년에 생겼는데 그때 처음으로 집단 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100% 다 검사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자세한 근거가 없는데 당시에 재단에 온 사람들만 검사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때 검사기록을 가지고 '몇 년도 이전에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돌아
 오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홍신 의원 : 혈우재단에 등록하기 전에 AIDS 검사를 하지요?

이성민 전무 : 등록하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신 의원 : 염용태 교수의 역학조사 보고서를 알고 계시죠? 당시 혈우병 AIDS환자 중 기양성자 3명과 등록시 발견된 4명을 제외한 14명은 재단 등록시 음성 판정 났었죠?

이성민 전무 : 네.

김홍신 의원 : 그 후 1~2년 사이에 집단적으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성민 전무 : 네.

김홍신 의원 : 그렇다면 14명의 검사결과가 집단적으로 잘못 나올 수도 있습니까?

이성민 전무 : 제가 알기로는 전부다 재검사를 하지 못하고, 초기에 혈청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는 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중에 3~4명이 1차에서 실험 잘못으로 양성을 잘못 판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신 의원 : 그렇다면 일부는 잠복기에 있다가 공교롭게 비슷한 시기에 양성 판정이 났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이성민 전무 : 그런 점도 있습니다.

김홍신 의원 : 김선영 증인은 이성민 증인의 답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염용태 교수 : 제 분야가 아닙니다.

김홍신 의원 : 그렇다면 조영걸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영걸 교수 : 10여명이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예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홍신 의원 : 조영걸 증인, 당시 국립보건원에 공중보건의로 근무하셨죠? 사건 발생했을 당시에 현장의사로 실제로 일부 혈우병 환자를 찾

아다니며 직접 채혈도 하고 상담도 하셨죠? 그리고 조사위원으로 참여하시기도 하셨죠? 공중보건의 제대 후에도 계속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셨죠?

조영걸 교수 : 네, 그렇습니다.

김홍신 의원 : 94년 5월 4일 열릴 회의에 대한 견해서에서 '본 사건은 복잡하게 생각하면 오리무중인 것 같으나 실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금까지의 조사로도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고 썼죠?

조영걸 교수 : 네.

김홍신 의원 : 제가 이해하기로는 결국 이것은 과학적 조사까지 갈 필요도 없이 유추하고 추적을 하면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조영걸 증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조영걸 교수 : 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김홍신 의원 : 무슨 의미인지 간략히 요약해 주십시오.

조영걸 교수 : 우선 모르시는 분을 위해 차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IDS 감염 경로가 대부분 성 접촉이고 두 번째가 수직감염(산모를 통해서 전염되는 경우)이고, 그 다음에 수혈, 혈액 제품이 있습니다. 앞의 성 접촉은 미성년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가능성이 없고, 수직 감염도 문제가 없습니다. 수혈도 아까 대답을 했지만 국내에서 그동안 자료를 보면 1백만 건 당 1명의 항체 미형성 기간 중에 그런 사고가 있을 수 있는 정도로 미비하기 때문에 결론에 나온 것처럼 혈액제품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로는 외제인지 국산인지 구분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모리큐라 에피데미올로지 자료를 보면 외국 바이러스가 아닌 것이 명확해 졌습니다. 그래

서 나머지 판단은 여러 의원님과 참고인들이 결론을 내려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홍신 의원 : 결국 그렇다면, 논문을 통해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입증하시는 것이죠?

조영걸 교수 : 네.

김홍신 의원 : 이성민 증인, 녹십자 전무로 계시고, 92년도에는 신갈공장 부공장장으로 계셨죠? 92년 11월 27일자 문화일보에 에이즈 감염 매혈자 혈액이 제품에 사용되었다는 기사가 나간 것을 인정하시죠? 그로부터 3일 뒤인 11월 30일자 문화일보에는 혈액제제 에이즈에 안전이라는 기사가 나갔습니다. 당시 기사에 취재를 안내한 것으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이성민 전무 : 맞습니다.

김홍신 의원 : 같은 기사 내용에 당시 에이즈에 걸린 매혈자인 박모씨, 박모씨가 맞죠?

이성민 전무 : 성은 오씨로 알고 있습니다. 익명성을 위하여 박모씨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신 의원 : 그러니까 이분은 11월 30일 이전에 매혈한 것인데, 이 혈액이 제품공정에 들어갔다는 것을 녹십자가 인정했습니다. 그렇죠?

이성민 전무 : 그것은 감염사실이 확인되기 이전의 일이었고, 11월 30일 공혈분 부터는 저희가 확인해서 분리처분하였습니다.

김홍신 의원 : 이 사건 이후에도 에이즈 감염자의 혈액이 제품공정에 투입된 적이 있죠?

이성민 전무 : 에이즈 감염이 확인되기 이전입니다.

김홍신 의원 : 감염사실이 확인 된 것 하고 확인 안된 것하고 그 차이 밖에 없는 것이죠?

이성민 전무 : 그렇습니다.

김홍신 의원 : 92년 12월 23일 국립보건원에서 열린 회의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이후에도 92

- 년 2월, 또는 6월에도 에이즈 양성자가 발생했고, 이들이 녹십자에 정기적으로 혈액을 매혈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죠?
- 이성민 전무 : 네. 하나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 먼저 박 모씨라고 말씀하신 분의 혈액은 혈우병 B 치료제에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 김홍신 의원 : 그렇다면 문화일보가 오보한 것입니까?
- 이성민 전무 : 문화일보는 당시 알부민 간염백신을 가지고 얘기했었습니다.
- 김홍신 의원 : 조영걸 증인, 제가 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서가 뭔지 아시겠죠? 숫자가 쪽 나열되어 있는 것인데, 이 문서를 입수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조영걸 교수 : 제가 보건원에 근무할 때 주 역할이 환자들 면담하고 그리고 역학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환자의 경우 역학조사 차원에서 혈청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그 당시 원장으로 계시는 분이 있는데로 원본 자료를 주셨습니다.
- 김홍신 의원 : 녹십자 혈액원이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 자료에 의하면 양성반응이 나타나기 전에 91년 4월 6일부터 92년 5월 30일까지 8차례 매혈된 혈액이 8인자 제품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맞습니까?
- 조영걸 교수 : 그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홍신 의원 : 이 자료는 녹십자 혈액원이 제출한 자료죠?
- 조영걸 교수 : 녹십자사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 김홍신 의원 : 국립보건원도 오염원 4인의 혈액 중 2명의 혈액이 제품 공정에 사용된 것으로 밝힌 적 있죠?
- 조영걸 교수 : 신문에서 그렇게 봤습니다.
- 김홍신 의원 : 이성민 증인, 오염원 4명의 혈액 중 2명의 혈액은 제품공정에 사용되고 나머지 2명은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당시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 이성민 전무 : 역학조사했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 김홍신 의원 :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이성민 전무 : 네.
- 김홍신 의원 : 김선영 증인, 92년 1월 8일 열린 혈액제제 안전성 회의 3차 회의에 참석을 하셨죠?
- 김선영 교수 : 기억은 없습니다만 참석한 것으로 되어있다면 틀림없이 참석했을 것입니다.
- 김홍신 의원 : 당시 회의에서 한규섭 위원은 'NYBC에서 기술제공자가 1년에 1~2회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고 발언했습니다. 맞죠?
- 김선영 교수 : 기억이 없습니다.
- 김홍신 의원 : 증거 자료가 있는데요.
- 김선영 교수 : 회의에 기록이 남아있으면 그럴 것입니다. 10여년이 지난 일이어서.
- 김홍신 의원 : 93년 5월 NYBC에서 호로위츠 박사가 와서 점검을 하기까지는 기술이전자의 점검이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다.
- 김선영 교수 : 제 영역이 아니어서 저는 공법 자체를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 김홍신 의원 : 같은 회의에서 이평우 위원은 '녹십자의 현장 브리핑이 요식행위였다' 공정 자체가 완벽하더라도 수행하는 사람이 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생산공정 관리가 중요함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 김선영 교수 : 저는 그 회의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기록이 남아있다면 맞을 것입니다.

김홍신 의원 : 조영걸 증인, 발표하신 논문이 매스컴에 보도된 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걸 교수 : 첫 논문이 김선영 교수님하고 저희하고 98년에 발표 되고, 그 이후에 99년도에 다른 논문을 발표하고, 2001년도에 2002년도에도 지금 논문이 발표되고 있는데 그 결과가 한결같이 한국인 바이러스는 대부분 한국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80%는 독특한, 세계의 다른 바이러스와는 구분되는 바이러스인 것으로 세계적인 대가들이 쓴 책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회의가 있었고, 역학조사와 분자역학적인 조사가 있었는데 그 두 조사를 같이 결부해서 평가할 기회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자적인 양심에 따라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김홍신 의원 : 계속 이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상당히 정신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으셨죠?

조영걸 교수 : 네, 그렇습니다.

김홍신 의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적인 양심은 변함이 없다는 표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조영걸 교수 : 네, 그렇습니다.

김홍신 의원 : 결론을 대신해서 정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대 초반에 일어난 일이고 10여년이 지난 지금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밝힌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은 간단합니다. 혈우병 환자 중 에이즈 환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했고, 감염원은 혈액제제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산인지 외국산인지 규명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는 오리무중이라는 얘기인데요. 그것을 푸는 열쇠

는 현대과학일 수도 있고 상식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만큼 선부른 판단 보다는 조사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고 우선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에 따라 하나하나 순서를 밟아가며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제는 일단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10년전처럼 애매 모호한 오리무중의 상태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역학조사의 수행과 유전자 검사 등 다양한 과학기술을 응용한 조사 등을 통하여 최대한 진실에 접근하도록 충분한 연구 활동비를 지급했으면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사원 감사나 검찰 조사를 활용해서 정확한 진상 조사가 규명되고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말...말...말...

염용태 교수 : 참고문헌으로 볼 것 같으면 모든 문헌에서 TNBP공법을 사용해서 만든 제품에서는 HIV 감염자가 1건도 세계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참고서적, 논문들이 있습니다.

조영걸 교수 : 혈우병 환자 중에 87년도 미국에서 진단받은 환자 한 분은 미국에서 살던 분이는데 그 분은 바이러스가 정말 미국 바이러스하고 유사하게 나왔고, 또 91년도에 진단받은 성인 한분도 역시 미국에서 장기간 살았는데 그 분도 미국 바이러스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15명이 분석된 것 중에 그 두명은 미국 바이러스와 유사하고 나머지는 전부 한국 바이러스로 구분이 명확하게 되었습니다.

김선영 교수 : (조사 분석 결과 당시 문제가 된 혈우병 환자들이 국산 제제에 의한 감염이 아니라 본 것인가는 질문에) 상호 감염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일요일날 방역과에서 들었는데 (염기서열이 유사한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혈우병 환자이고 한 사람은 매혈자라고 하는데 한 사람은 녹십자의 제제가 투여되기 이전에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들었습니다. 조영걸 교수의 논문과 제 논문과는 사실상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서로간에 상충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국산 혈액제제와 혈우병 환자의 에이즈 감염간에 인과 관계가 있는냐는 질문에)

조영걸 교수 : (인과 관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김선영 교수 : 염기서열만 가지고, 염기서열로 만들어진 분석방법을 봤을 때에는 그렇게 얘기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논문에서도 그렇고 조영걸 박사의 최근 논문에서도, 예를 들면 대개 트리(나무가지)처럼 비유를 하는데 감염된 사람들끼리 확 뭉쳐 있으면 그러면 그런 의심을 좀 더 많이 할 텐데 이번 경우에는 사이사이에 저희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어갑니다. 그럴 경우에 가능성은 있지만 결론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염용태 교수 : 조영걸 교수의 논문은 보지 못했

고 김선영 교수의 논문은 들었습니다. 김선영 교수의 설명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아 그렇구나' 하고 수긍은 하였습니다.

(‘에이즈의 집단 발견인가 집단 확인인가’라는 질문에)

조영걸 교수 : 10여명이 기왕에 등록하면서 에이즈가 안 걸렸다는 것을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국산 제품을 맞았는데 불과 1~2년 있다가 10여명이 집단적으로 난 것은 애들이 대부분 미성년자였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씀드려서 있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김선영 교수 : 저 같은 경우는 한국형 에이즈 바이러스가 존재한다고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인데, 그 결론은 그게 역학적입니다. 염기서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염기서열 그러니까 매혈자랑 혈우병 환자 감염자 사이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또 있습니다. 다른 집단, 동성연애자나 그런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단정적으로 즉, 한국형 에이즈 바이러스라는 것이 지금 블랙박스입니다. 그게 왜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퍼져 나가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히 혈액제제라는 것을 딱 명시해서 인과관계를 얘기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 황 일 지

9월 13일 : 동아일보 1면 '혈우병 환자 18명 에이즈 감염' 제하로 게재됨(툭기사), 3면에 관련 기사.

- 국립보건원 방문 - '보도 내용은 10년 전의 일로 파악중에 있으며, 복지부 장관의 제조사 지시로 조사위원회가 구성될 것'